

트와이스, 미국 시장 겨냥 첫 영어 싱글 발매

최근 미국에서 팬명을 뒀고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가 데뷔 후 처음으로 영어 싱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북미 음악 시장 겨냥에 나선다.

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10월 1일 0시(미국 동부시간) 첫 영어 싱글 '더 피츠(The Feels)'를 발매한다. 트와이스는 앞서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 '아이 캔't 스톱 미(I CAN'T STOP ME)' 등 한국 앨범에 수록된 곡을 영어 버전으로 내놓은 적은 있지만, 영어 싱글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트와이스 첫 영어 싱글 '더 피츠' 발매에 앞선 사진.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악에 맞춰 차례로 보며 워킹을 선보였다.

2015년 데뷔 이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트와이스는 지난해 미국 유니버설 뮤직 산하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일궜다. 이후 영어 버전곡을 잇달아 발매하고 미국 유망 톱쇼 '올더 너제너레이션 쇼' 등에 출연하며 팬명을 쌓았다.

그 결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00위로 처음 진입한 뒤 72위, 6위로 순위를 끌어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트와이스는 지난 일월 일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멤버들은 파우더룸에서 손에 찍은 립 케임을

트와이스는 세계 걸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18명의 역대 뉴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투바투, '빌보드200' 11주 차트인

그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바투·TX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8월 6일 발매된 그룹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랫동안 '빌보드 200' 차트인한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8일 빌보드에 발표한 최신 차트(9월 11일 자)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정규 2집 앨범 '혼돈의 장(FREEZE)'은 '빌보드 200' 26위에 올라 통산 11주째 차트인에 성공했다.

이 앨범은 지난 6월 19일 자 '빌보드 200' 차트에 5위로 진입한 후 9주 연속 차트인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자 차트에서 정규 2집 리메이크 앨범 '혼돈의 장: 파이트 오어 이스케이프(FIGHT OR ESCAPE)'의 판매량이 합산되면서 8위로 재진입했다.

단일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11주 이상 차트인을 유지한 K-팝 보이그룹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두 번째다. 특히, '혼돈의 장: 프리즈(FREEZE)'는 올해 발매된 K-팝 그룹의 앨범 가운데 최장기간 '빌보드 200'에 차트인한 앨범이라는 타이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사진=베리뷰 뮤직

'혼돈의 장: 프리즈'는 빌보드의 다른 차트에서도 선전했다. '빌드 앨범' 차트에서 정상은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리언트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각각 5위,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차트에서 3위를 차지했다. 리메이크 앨범 '혼돈의 장: 파이트 오어 이스케이프(FIGHT OR ESCAPE)'의 타이틀곡 '투지 리베어(LOSER=LOVE)'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2위에 올랐다.

BTS '버터', 리믹스로 빌보드 1위 재탈환



▲ 방탄소년단, 사진=베리뷰 뮤직

방탄소년단(BTS)의 '버터'가 리믹스 버전 출시에 힘입어 한 달 만에 빌보드 정상에 복귀했다.

7일 빌보드는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버터'가 1위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버터'가 핫 100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10주째다. 작전주 순위는 7위였다.

지난 5월 21일 발매된 '버터'는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통산 9주간 핫 100을 장기간 석권했다. BTS의 또 다른 곡 '데미션 투 텐스'가 1주간 1위를 넘겨준 것을 제외하고 내내 정상상을 지켰다.

'버터'는 음에 들어 가장 오래 핫 100위에 머무른 곡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1위 복귀도 해당 기록을 한 주 연장하게 됐다. 1위에 오른 것은 최근 4주 동안에도 4위~7위~8위~7위를 기록하며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인기를 유지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핫 100 차트의 63년 역사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버터'를 비롯해 역대 40곡뿐이다.

'버터'의 1위 반등은 지난날 27일 스탠다이어 피쳐링한 리믹스 버전이 출시되며 새롭게 추진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버터' 리믹스 버전은 스탠다이어가 가세해 합입은 립과 에드리트를 펼치면서 색깔이 더 풍부해졌다. 스탠다이어는 음에 그 래미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3경왕을 차지한 차세대 여색사이다.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very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